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말의 향기

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상냥스럽고 정겹게 하는 말과 통명스럽고 듣기에 거북하게 하는 말투가 있다. 말씀은 말의 존댓말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씨가 돼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씨가 되므로 부모와 교육자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심사숙고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하며 함부로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칭찬하는 말씀은 그것이 씨가 돼 성공하게 한다.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이지만, 항상 선생님은 꾸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노력해 보자"하고 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나 "너는 어찌 그리 미련하냐. 남들은 잘하는데" 하며 비교하는 말로 꾸준하면 열등감이 씨가 돼 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졸업식 날 가정이 가난해 진학을 못 하는 학생에게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네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담임 교사의 정겨운 격려의 말씀은 씨가 돼 학생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임 만금(전 담양동 교장)은 2014년 2월 말 정년퇴임 했다. 2013년 1월 6일 방학 중에 학교 근무하는 교장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어른들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워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기본 좋

찾아와 인사드립니다."하고 큰절 하는 젊은이는 41년 전, 임 교장이 초 임지 영광 백수 북 초등학교에서 6학년 때 담임한 제자였다. 이 성화는 담임교사의 "성화는 꼭 성공할 거야"라는 말이 씨가 되고 각인이 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고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벤처기업으로 성공해 부자 사장이 돼 담임 교사에게 선물로 그랜저 자동차와 1천만 원을 전달한 미담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말은 씨가 돼 성공하게 하는 말씀을 해야 한다.

말에는 "복(福)이 되는 말, 독(毒)이 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많다.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는 독이 되는 말을 한다. 말하는 말의 세 부류가 있다. 말씨, 말씀, 말투가 그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말씀), 말을 던지는 사람(말투)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등급이 있다. 말씀은 말과 다르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불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말씀이다. 교회 성당 사찰에서는 목사 신부 주지승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다. 초등생 어린이에게 "씩씩하고 멋지구나. 넌 장군감이다." "넌 말을 잘하니 변호사가 되겠구나." 이렇듯 말에 복을 담는 습관이 필요하다. 좋은 언어 습관은 말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철에서 중년 여인이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어쩔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다음 역에서 중년 여인이 내리기 무섭게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늙은 거 누가 몰라." 말이란 뒤을수록 빛나고 향기가 난다. 말할 때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며 말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고 해서 실언이나 허언 같은 말실수를 안 해야 한다.

말은 자기의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소리가 커도 안되며 작아도 안 된다. 분위기에 따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항상 고운 목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하며 그것이 습관화돼야 한다. 통명스럽고 듣기 거북한 말소리(말투)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좋은 말씨가 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고 듣기 좋은 말의 향기가 풍기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한다.

독자기고

올 여름 휴가, '농촌체험 팜스테이'로 떠나요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전혀 미지수다. 왜냐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이외에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폐된 장소는 꺼려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여름이다.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던 터라 올해 여름은 벌써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철 집중호우와 때 이른 폭염경보는 올 여름 날씨가 꽤나 더울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이상고온'과 함께 시작된 7월, 이제 직장인들의 휴가 고민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부서 또는 팀 내 일정을 분산해서 휴가를 쓰는 게 관례이다 보니 여름휴가를 언제 갈지, 또 어디로 갈지 미리미리 계획하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여름휴가 선택지가 꽤나 많아져서 고민거리도 덩달아 늘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로 향하는 하늘 길마저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모 숙박플랫폼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9.7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여름휴가 풍경이 그대로 재현될지는 여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름휴가는 산과 들,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농촌 힐링여행'으로 계획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농촌체험 팜스테이' 말이다. 팜스테이는 농장(farm)에 머무는(stay) 여행이다.

농가에 숙식하며 농산물을 수확하고 시골 문화도 체험하는 일종의 '농촌체험 여행프로그램'을 말한다.

팜스테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도농상생'을 위한 취지에서 1999년 농협에서 처음 시작됐다.

현재 전국 지방공공 300여 개의 팜스테이 마을이 운영 중이다.

특히 각 마을마다 지역특색에 맞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기특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휴가는 '농촌체험 팜스테이'로 떠나자. 무더위는 물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찌든 몸과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말이다. 생각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목소리다. 말에는 말씨 말씀 말투가 있는데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듯이 말에도 그 말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다. 말이 씨가 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말씨가 있으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어른들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워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기본 좋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